

I make

과거 사진은 기계적, 물리적 프로세스에 기반을 두어 실재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그림으로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 상을 정착시키길 원했고, 이것이 초기 사진이었다. 이후 이러한 기술은 세상을 미러링해 보여주는 하나의 매체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진은 대상을 재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사진 프로세스 안에서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매체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며 더 확장된 차원에 진입했다. 이미지 생산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 지금, 넘쳐나는 디지털 이미지는 손에 잡히지 않는 데이터라는 특성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면을 드러내 보이는 상태에 접어들었다.

평면이 된 개인의 경험은 디지털 환경 속을 유영하며 실재하지 않는 환영이 되어 현실 속 주변의 것들을 정확히 바라볼 수 없도록 머릿속을 뒤섞어놓는다. 이윽고 이와 밀착된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에서 매일 수천 장의 이미지가 되어 쏟아진다. 계속되는 경험의 이동은 프레임 안과 밖을 이동하며 어느새 눈앞에 유령처럼 다시 나타난다.

나는 이 환영과 뒤섞인 경험들이 만들어낸 장면을 가상의 공간으로 불러 들여왔다. 상상 속 파편들은 반복되는 일상이 환상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이미지로 발현되며 이는 결국 본다는 것에 익숙함을 가장한 '사실은' 허구의 이미지이다.

이제 바라봄의 경험은 프레임 밖으로 자리를 옮겨 낯익은 사물의 물성을 분리하고 변형시켜 각각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인다. 그리고 뭉뚱그려져 있던 나의 감각을 무질서하게 흩트려 뜯어내로 체험했던 수많은 시각적 경험을 보기 좋게 해체한다. 'I make' 는 이 일련의 식별 과정을 거쳐, 디지털 시대의 사진 - 이미지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의 반복으로 만들어낸 환영일지도 모른다는 시각 인식을 제시하며 사각의 평면 속을 떠도는 존재들의 예기치 않은 만남의 순간을 기다린다.